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안 명 희[†]

서강대학교

부모 심리적 통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그 원인 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녀에 대한 애정적 통제와 언어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와 자아유능감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만 3-5세 유아 497명의 어머니 자기보고를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자녀에 대한 언어적 통제와 애정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정서와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한편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정서와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자녀에 대한 언어적, 애정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모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각각 개별적인 심리적 과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이 심화되었으며 이 과정은 자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자아유능감에 불안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는 자녀에게 애정철회의 위협 그리고 수치심과 죄의식 유도 등의 애정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유능감은 애정적 통제와 함께 언어 표현의 제제와 감정 불인정 등의 언어적 통제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모의 성격특성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의 필요를 시사한다.

주요어 : 불안정 성인애착, 우울, 불안, 자아유능감, 모의 심리적 통제

[†] 교신저자 : 안명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Tel : 705-8837, E-mail : christine@sogang.ac.kr

상당 장면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의 경우 자신의 성격 특성이 부모역할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종종 대면하게 된다. 특히 친밀한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 정서반응, 대처양식, 자녀에 대한 양육적 보살핌과 관련된 정서적 부대낌과 소진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훈육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아유능감의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유아기는 아동, 청소년기에 비해 부모의 무조건적 양육적 보살핌의 필요가 큰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예외적인 교육환경에서는 조기교육과 선행학습 현장에 입문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보편적으로 한두 자녀만을 두고 있는 실정까지 감안하면 유아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지만 아동 혹은 청소년기 부모에 비해 정서적 성숙도나 부모 역할수행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양육적 부담으로 역기능적 양육태도를 보일 위험이 있는 유아 부모대상의 관련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양육적 민감성을 저해하는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한 경우 자녀에 대한 심리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모 심리적 통제의 원인 요인을 부모의 성격적 특성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 정서, 그리고 자아유능감이 심리적 통제에 관여하는 구체적 경로를 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심리적 통제는 개인의 심리적 필요에 의해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행동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는 부모가 자녀와의 심리적, 정서적 경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부모 심리적 통제는 부모-자녀 관계를 조종하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공격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철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등의 역기능적 훈육태도로 드러난다(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Barber, Sholtz, & Olsen, 2005; Olsen, Yang, Craig, Robinson, Peixia, Nelson, Jin, Shenghua & Wo, 2002; 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자녀의 못마땅한 행동에 대한 심한 나무람과 이에 동반되는 공격적 정서는 자녀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모 심리적 통제는 부모-자녀 관계의 부정적 심리적 역동의 원인이 되며 또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행동에 대한 이해 혹은 예측이 어려워 심리적 통제는 신체적 처벌에 버금가는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자녀가 뭔가 말하려 할 때 말문을 막고 표현을 제재하거나, 감정을 공감해주지 않거나, 사소한 잘못에도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위협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식의 반응은 어린 자녀에게 혼란,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낮은 존중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적, 애정적 통제가 만성적인 경우 심리적 통제는 정서적 공격에 노출되는 경험 즉, 심리적 학대와 동일 선상에서 경험된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 본위로 자녀의 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의 심리적 역동을 조종하는 시도이기에 부모의 성격특성이 중요한

결정 요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애착은 관련연구에서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하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자신의 대처행동을 주도하는 내적 작동모델(Bowlby, 1984)로 개념화한다. 즉 애착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잠재적인 심리적 기제이다(Kobak, 1999). 그러므로 애착의 개인차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보다는 부모-자녀 관계 혹은 이성이나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리고 특히 갈등 상황에서 드러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어머니가 자녀나 배우자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거나 애정적 거부나 무관심을 느끼는 상황에서 애착 관련된 사고와 감정이 촉발되고 이에 대한 방어적 전략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의 애착유형은 자녀에 대한 양육적 민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 자신이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고와 정서체험의 통합의 정도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차이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Belsky, 1984; Shaver & Mikulincer, 2011)

이처럼 성인애착의 개인차를 애착 관련 정서조율 능력 혹은 방어적 전략의 차이로 접근하는 경우 이성 혹은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애정을 요구하고 거절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정도를 불안애착으로 평가한다. 한편 애착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려 하지 않으며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친밀감을 회피하는 정도를 회피애착으로 측정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Clark, & Shaver, 1998; Mikulincer & Shaver, 2003; Mikulincer & Shaver,

2008; Mikulincer, Shaver, Cassidy, & Berant, 2009; Rholes, Simpson, & Orlina, 1999; Shaver, Segev, & Mikulincer, 2011;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 한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유형은 애착 관련된 사고와 정서에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이나 이에 대한 대처양식(Cassidy & Berlin, 1994; Cassidy & Kobak, 1988; Fonagy, Gergely, Jurist, & Taget, 2002; Shaver & Mikulincer, 2002)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불안애착이 높으면 관계적 어려움에 대한 예민성 혹은 각성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회피애착이 높은 경우 애착 관련 사고나 정서의 활성화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애착 관련 정서에 대해 무덤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 억압 혹은 의식적 억제를 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회피애착 역시 심리적 에너지의 소모가 큰 상태라고 볼 수 있다(Shaver & Mikulincer, 2002). 때문에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유형 모두 대인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봉착하면 자기감정에 휘둘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적고 현실적인 대처를 못 할 확률이 높다. 관련연구들도 불안애착이 높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한편 회피애착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무관심과 감정절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관찰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회피애착의 감정적 동요와 공격적 태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ssidy & Shaver, 2008; Levy, Blant, & Shaver, 1998; Toth & Cicchetti, 1996).

이렇듯, 부모의 성격특성 중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녀에 대한 부모 심리적 통제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예측되나 이들 간의 구체적인 영향력의 경로를 유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탐색한 경우가 매우 적다. 국내 관련 연구들은 학령기 혹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적응문제에 관한 탐색이 주를 이룬다(권기정, 2008; 김송아, 2008; 김혜인, 2010; 김희영, 박성연, 2008; 양승윤, 2008; 이미정, 2010; 전숙영, 2007).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

부모의 정서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심리적 필요에 대한 민감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특히 우울한 부모는 자녀에 대해 더 공격적이고 무관심하며 불안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집착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Adam, Gunnar, & Tanaka, 2004; Goodman & Gotlib, 2002). 구체적으로 부모의 우울은 자녀에 대한 애정적 거부와 무관심과, 부모의 불안은 자녀에 대한 과보호 혹은 과도한 간섭과 통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몰입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소연주, 도현심, 2001; Downey & Coyne, 1990; Lyons-Ruth, Lyubchik, Wolfe, & Bronfman, 2002; Treffers & Silverman, 2001; Trentacosra & Shaw, 2008; Woods, 2006). 한편 부모의 정서적 긴장감과 불쾌감은 자녀에 대한 언어적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이경남, 2004). 따라서 부모의 정서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정서는 애착으로 정의되는 대인관계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촉발 단서이며 이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여진다. 관련연구들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다양한 정서적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 불안정 애착은

우울과 높은 관련성(Wei, Vogel, Ku, & Zakalik, 2005)을 보이는데 그 중 불안애착은 우울뿐만 아니라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Cassidy & Shaver, 2008; Mikulincer외, 2009; Wei 외, 2005). 이렇듯 부모의 정서는 애착의 영향을 받고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혹은 훈육방법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다.

부모의 자아유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하고 효율적(Bandura, 1989)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에 필요한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의 정도(Coleman & Karraker, 2000; Gondoli & Silverberg, 1997)를 포함하는 부모의 성격적 특성이다. 부모의 자아유능감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모의 인지적 특성으로도 이해된다(Ardelt & Eccles, 2001; Bandura, 1989). 따라서 부모의 자아유능감은 훈육장면에서의 정서조율 능력과 관련성이 높아 부모 유능감이 낮은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다. 하지만 부정적 정서상태가 낮은 부모 유능감의 원인이 된다고 개념화하는 경우도 있다(Jones & Prinz, 2005). 부모가 우울증의 핵심요인인 무기력감과 무가치감을 경험하는 경우 양육 효능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Maciejewski, Prigerson, & Mazure, 2000). 부모의 정서조율 능력이 저해되면 이를 회복하는데 심리적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양육 장면에서 대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처하는 자아유능감이 저해된다(김경미, 박범혁, 김영희, 2005). 일반적으로 높은 부모 자아유능감은 지지적이며 양육적인 훈육 책략과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Ardelt & Eccles, 2001; Coleman &

Karraker, 2000; Coleman & Karraker, 2003; Jones & Prinz, 2005).

이렇듯 높은 자아유능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훈육자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반면 낮은 부모 유능감은 특히 훈육장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자녀의 짜증이나 불복중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자녀에게 휘둘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잦은 힘겨루기(power struggle)상황을 초래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거나 심리적 위협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Bugental, Blue, & Cruzcosa, 1989).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는 주도권을 유지하고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어적 폭력 혹은 신체적 처벌을 포함한 손쉬운 해결책을 쓸 확률 또한 높아진다(Bugental 외, 1989; 이경남, 2004). 하지만 이와 같은 역기능적 전략은 본질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낮은 자아유능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부모의 낮은 자아유능감은 강압적 양육태도를 고수하게 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아유능감이 낮으면 유아 자녀의 공격적 행동에 훈육적 전략보다는 감정적 반응(김미혜, 옥경희, 천희영, 2003; Bugental 외, 1989; Bugental & Johnston, 2000)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정서나 혼란의 감정을 많이 느끼거나, 자녀의 문제 행동을 연령 및 습관이나 타고난 성향으로 귀인하며, 부모 위주의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심리적 통제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보고도 있다(정미경, 김영희, 2003). 낮은 자아유능감을 경험

하는 어머니들은 아동기 양육경험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부모로부터 애정은 적게 받고 거부와 방임이 경험이 많다고 보고한다. 이들은 또한 현재 부부관계에서 갈등이나 애정적 표현의 결여를 경험한다고도 보고한다(김경미 외, 2005). 따라서 어머니의 낮은 자아유능감은 자신의 애착과 정서와 관련성이 높으며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원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 정서조율, 자아유능감과 심리적 통제

애착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활성화 되는 심리적 기제이다. 어린 자녀와의 훈육적 갈등상황은 부모가 자신의 권위나 자존감 유지를 위한 방어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있다. 따라서 친밀한 대상관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경험될 수 있다. 특히 불안정 애착을 보이고 훈육경험이 적은 부모에게 자녀와의 갈등상황은 정서조율 능력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체험이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될 때 자아유능감 또한 낮아져 부모 자신의 불안정 애착 양상이 자녀에 대한 부모민감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불안정 애착, 정서, 그리고 자아유능감은 유기적인 관련성을 보인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관련 부모 성격특성들과 이들이 부모 혹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탐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선행연구를 토대로 양육적 민감성을 저해하는 모의 심리적 통제의 원인요인들의 구체적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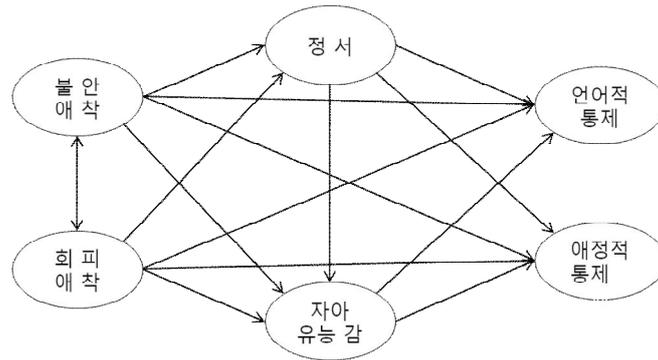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형

를 위해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을 어머니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이 매개하는 이론적 경로구조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자신의 정서, 자아유능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언어적, 애정적 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어머니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은 불안정 성인애착의 영향을 받고 언어적, 애정적 통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는 자아유능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에 의거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을 통해 임의로 표집된 어머니들의 자료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남(n=259, 52.1%) 녀(n=238, 47.9%) 유아 총 497명(N=497)의 어머

니 자기보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기혼(n=441, 88.7%)이었고 해당 유아는 대부분 첫째(n=273, 55%) 아니면 둘째(n=185, 37.2%)였다. 어머니들의 연령은 31~35세(n=182, 36.6%), 36~40세(n=200, 40.2%), 그리고 41~45세(n=55, 11.1%)순으로 대부분이 30대 중반이었으며 고졸이상(n=257, 51.7%)과 대졸 이상(n=211, 42.5%)이 전체의 94.2%(n=468)이었다. 어머니들의 직업은 전업주부(n=236, 47.5%)보다 직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장을 갖고 있는(n=261, 52.5%) 경우, 전문직(n=103, 20.7%), 사무직(n=71, 14.3%), 그리고 자영업(n=63, 12.7%)순이었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이 399만원 미만(n=387, 80.0%)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중산층으로 추정된다.

측정도구

불안정 성인애착

Brennan, Clark, Shaver(1998)의 개정판 성인용 친밀한 관계의 애착척도(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S-R)를 번안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평가하였다. ECRS-R은

성인 애착의 양상을 긴밀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짜수 문항, 22번 역 채점)과 회피(홀수 문항, 8개의 역채점 문항 포함)수준을 각각 18문항으로 평가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type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 문항의 총점을 각각 연속 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각각 .886과 .794이었다.

정서

불안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지표 중 불안은 Spielberger(1970)가 개발한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한국 어판 상태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TAI는 Likert-type 4점 척도로 측정되며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역채점 문항을 포함한 총점이 20점~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신뢰도는 .919이었다.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역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총 2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901이었다.

자아유능감

어머니의 자아유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의 9문항과 Wells-Parker(1990)의 Parenting Efficacy Scale 중 5문항을 본 연구

자가 번역, 역 번역 후 유아와의 혼육 상황에 맞게 수정 번안한 총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유아교육과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예비조사와 요인분석을 거쳐 확정되었다. Likert-Type 5점 척도인 본 도구의 신뢰도는 0.877로 나왔다.

심리적 통제

유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총 18문항의 유아용 부모 심리적 통제척도로 평가하였다. 본 척도는 Barber(1996)가 청소년용으로 제작한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근거로 Olsen(Barber외, 2005; Olsen 외, 2002)이 사용한 유아용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에 기초해서 제작되었다. 본 연구자가 Olsen의 문항과 PCS-YSR을 비교하여 한국 유아의 혼육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항들을 선정, 번역과 역 번역 후 유아교육과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3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예비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포함된 해당 문항들은 Likert-type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많은 것을 뜻한다. 유아의 언어표현을 제재하고 감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언어적 통제, 유아의 잘못을 들어 애정철회에 대한 위협,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는 등의 애정적 통제를 포함한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0이었다.

자료 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과 상관은 SPSS.

17.0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 탐색한 어머니의 성인애착, 정서, 자아유능감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Amos 1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 집단의 구조모형분석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경로계수에 대한 차이분석을 통해 차이에 대한 통계량의 절대값이 대략 2(정상 분포 상위 97.5%에 해당하는 분위수 = 1.96)보다 크면 남녀 집단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변수들 간의 관계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들의 불안애착, 회피애착, 우울, 불안, 자아유능감, 언어적 통제와 애정적 통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표 2에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자료에 매우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df = 38, N = 497) = 60.994, p = .010, \chi^2/df = 1.605, NFI = .974, CFI = .990, RMSEA = .035$).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분석 결과가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되어있다.

표 1. 연구모형에서의 측정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

측정변수	1	2	3	4	5	6	7	신뢰도	왜도	첨도
1 불안애착	-							.866	0.181	0.049
2 회피애착	.251**	-						.794	0.073	-0.188
3 우울	.280**	.249**	-					.901	1.832	5.327
4 불안	.331**	.259**	.699**	-				.919	0.744	0.518
5 자아유능감	-.265**	-.270**	-.391**	-.486**	-			.877	-0.226	-0.064
6 언어적 통제	.261**	.177**	.178**	.214**	-.338**	-		.661	0.548	0.179
7 애정적 통제	.309**	.093	.237**	.318**	-.312**	.568**	-	.671	0.646	1.326
평균	2.306	2.551	1.375	1.889	2.812	1.654	1.792			
표준편차	0.538	0.451	0.355	0.474	0.473	0.376	0.378			

*p<.05, **p<.01, *p<.001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Index	χ^2	df	p	χ^2/df	NFI	CFI	RMSEA
Value	60.994	38	.010	1.605	.974	.990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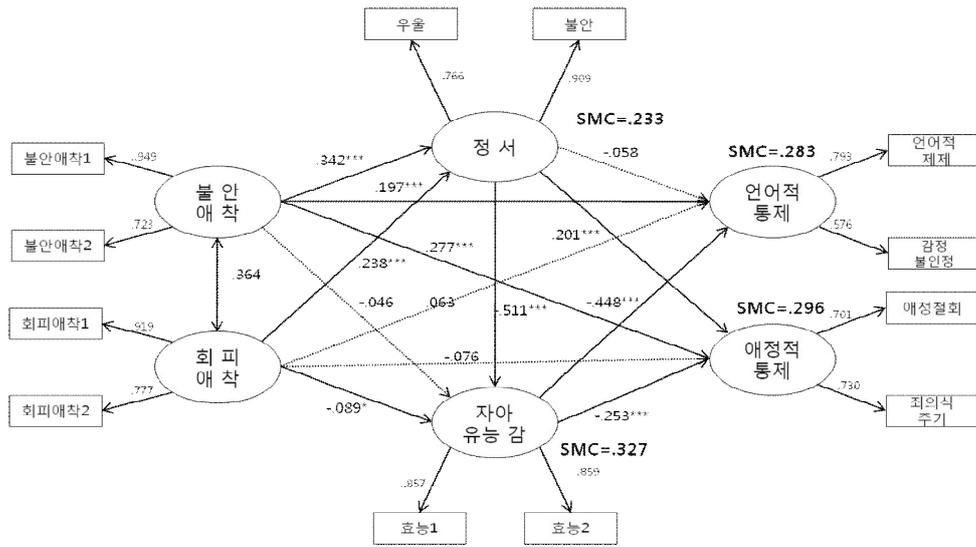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 정서, 자아유능감, 심리적 통제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표 3. 연구모형의 구조경로 값

준거변인	예언변인	원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고정지수 (t-value)	다중상관 계수 (SMC)
		(Unstandardized(SE))	(Standardized)		
정서	불안애착	.229(.037)	.342	6.172***	.233
	회피애착	.174(.039)	.238	4.407***	
자아유능감	불안애착	-.052(.059)	-.046	-.874	.327
	회피애착	-.109(.064)	-.089	-1.709*	
	정서	-.856(.100)	-.511	-8.565***	
언어적 통제	불안애착	.158(.050)	.197	3.183***	.283
	회피애착	.055(.053)	.063	1.048	
	정서	-.070(.090)	-.058	-.773	
	자아유능감	-.321(.052)	-.448	-6.184***	
애정적 통제	불안애착	.220(.050)	.277	4.385***	.296
	회피애착	-.066(.052)	-.076	-1.267	
	정서	.238(.089)	.201	2.664**	
	자아유능감	-.179(.050)	-.253	-3.562***	

주, 일방검증, *p<.05, **p<.01, ***p<.001

표 2와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불안애착($\beta = .324, t = 6.172, p < .01$)과 회피애착($\beta = .238, t = 4.407, p < .01$)은 어머니의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어머니의 회피애착($\beta = -.089, t = -1.709, p < .05$)과 정서($\beta = -.511, t = -8.565, p < .01$)는 어머니의 자아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는 불안애착($\beta = .197, t = 3.183, p < .01$)이 증가하고 자아유능감($\beta = -.448, t = -6.184, p < .01$)이 감소할

표 4. 남녀별 분석 모형의 적합도

Index	χ^2	df	p	χ^2/df	NFI	CFI	RMSEA
Value	111.854	76	.005	1.472	.954	.984	.031

표 5.1. 남아집단의 구조경로 계수값

준거변인	예언변인	원 추정치 (표준오차) (Unstandardized(SE))	표준화된 추정치 (Standardized)	고정지수 (t-value)	다중상관 제곱 (SMC)
정서					.233
	불안애착	.170(.047)	.250	3.593***	
	회피애착	.246(.056)	.337	4.408***	
자아유능감					.278
	불안애착	-.074(.076)	-.065	-.964	
	회피애착	-.086(.091)	-.070	-.936	
언어적 통제	정서	-.775(.136)	-.465	-5.696***	
	불안애착	.152(.060)	.198	2.515	.271
	회피애착	.094(.071)	.114	1.322	
애정적 통제	정서	-.125(.111)	-.111	-1.128	
	자아유능감	-.298(.064)	-.441	-4.638	
	불안애착	.204(.063)	.250	3.224***	.255
	회피애착	-.073(.072)	-.084	-1.013	
	정서	.246(.114)	.205	2.152**	
	자아유능감	-.179(.065)	-.249	-2.760***	

주, 일방검증, * $p < .05$, ** $p < .01$, *** $p < .001$

때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한편 어머니의 불안 애착($\beta = .277, t = 4.385, p < .01$), 정서($\beta = .201, t = 2.664, p < .01$)와 자아유능감($\beta = -.253, t = -3.562, p < .01$)은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한편 어머니의 불안애착($\beta = .046, t = -.874, p > .05$)이 자아유능감, 어머니의 회피애착($\beta = .063, t = 1.048, p > .05$), 정서($\beta = -.058, t = -.773, p > .05$)가 언어적 통제, 그리고 어머니의 회피애착($\beta = -.076, t = -1.267, p > .05$)이 애정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채택된 구조모형이 어머니의 정서의 변량을 23%, 어머니의 자아유능감을 33%, 언어적 통제를 28%, 그리고 애정적 통제 변량의 30%를 설명했다.

한편 표 4, 표 5.1과 표 5.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어머니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녀의 성

표 5.2. 여아집단의 구조경로 계수값

준거변인	예언변인	원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고정지수 (t-value)	다중상관 제공 (SMC)
정서					.273
	불안애착	.317(.058)	.470	5.432***	
	회피애착	.079(.057)	.107	1.382	
자아유능감					.398
	불안애착	-0.003(0.095)	-0.002	-0.027	
	회피애착	-0.173(0.089)	-0.142	-1.949*	
언어적 통제	정서	-0.955(0.15)	-0.573	-6.353***	
					.283
	불안애착	0.174(0.085)	0.203	2.046*	
애정적 통제	회피애착	0.024(0.08)	0.026	0.301	
	정서	-0.035(0.153)	-0.028	-0.231	
	자아유능감	-0.331(0.086)	-0.434	-3.846***	
					.338
	불안애착	0.236(0.083)	0.303	2.847***	
	회피애착	-0.059(0.076)	-0.07	-0.775	
	정서	0.22(0.147)	0.191	1.501	
	자아유능감	-0.178(0.08)	-0.257	-2.213**	

주, 일방검증,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남녀 차이분석

준거변인	예언변인	남자집단	여자집단	차이에 대한 통계량
		Estimate(S.E.)	Estimate(S.E.)	C.R.
정서	불안애착	.170(.047)	.317(.058)	.1969*
	회피애착	.246(.056)	.079(.057)	-2.096*
자아유능감	불안애착	-.074(.076)	-0.003(0.095)	.581
	회피애착	-.086(.091)	-0.173(0.089)	-.687
	정서	-.775(.136)	-0.955(0.15)	-.888
언어적 통제	불안애착	.152(.060)	0.174(0.085)	.021
	회피애착	0	0.024(0.08)	-.654
	정서	-.125(.111)	-0.035(0.153)	.475
	자아유능감	-.298(.064)	-0.331(0.086)	-.305
애정적 통제	불안애착	.204(.063)	0.236(0.083)	.303
	회피애착	-.073(.072)	-0.059(0.076)	.136
	정서	.246(.114)	0.22(0.147)	-.139
	자아유능감	-.179(.065)	-0.178(0.08)	.016

주, 양방향검증, * $p < .05$, ** $p < .01$, *** $p < .001$

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어머니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차이를 보였다. 불안애착은 남자집단($\beta = .250, t = 3.593, p < .01$)에 비해 여자집단($\beta = .470, t = 5.432, p < .01$), 이 어머니의 정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회피애착은 남자집단($\beta = .337, t = 4.408, p < .01$), 이 여자집단($\beta = .107, t = 1.382, p > .05$),에 비해 어머니의 정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머

지 다른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논 의

본 연구의 핵심가정에 대한 경로 구조모형 검증결과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직,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구체

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의사표현을 제재하거나 감정을 억제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야단을 치는 언어적 통제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한 처벌로 자녀에게 애정 철회를 위협하거나 유아의 의도를 어머니에 대한 상처주기로 왜곡하여 죄의식을 유도하는 등의 애정적 통제가 심화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가중되고 가중된 우울과 불안은 낮은 자아유능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어린 자녀에 대한 언어적, 애정적 통제수준을 높이는 간접경로도 유의하게 나왔다. 한편 회피애착이 자녀에 대한 언어적, 애정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자아유능감이 저하되는 매개과정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심화되면 우울과 불안이 가중되고 이는 양육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아유능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낮아진 어머니의 자아유능감은 심리적 공격의 성향을 띠는 언어적, 애정적 통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정서조율 능력이 저해되어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체험이 가중된다는(Kobak, 1999)관점을 지지한다. 하지만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심리적 기제가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각기 다른 심리적 방어기제에 의존한다는 선행연구결과(Downey, Coyne, 1990; Shaver, Segev, & Mikulincer, 2011; Toth, Harris, Goodman, & Cappelz, 2011)를 지지한다. 한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궁극적

으로는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인 심리적 역동의 결정요인이 된다는 주장(Belsky, 1984; Cassidy & Shaver, 2008; Deklyen & Greenberg, 2008; Mikulincer, Shaver, Cassidy & Berant, 2009) 역시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원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부모는 유아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결과(박경희, 2004; 전현진, 1997)를 배우자에 대한 불안정 애착의 관점에서 확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불안애착은 어린 자녀에 대한 언어적, 애정적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어린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이 회피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을 행동화할 위험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불안애착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와의 애착관련 사고와 정서 그리고 대처양식에 대한 통찰이 자녀에 대한 부모민감성을 고취시키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대로 회피애착의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적 통제는 자신의 부정적 정서나 자아유능감이 낮아질 때,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통찰이 없이 드러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회피애착의 방어적 양상을 감안하면 어머니의 배우자에 대한 애착관련 사고와 감정에 대한 심리적 통찰보다는 자녀 훈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어려움 혹은 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문제해결적 상담전략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가진 어머니의 정서조율

능력이 저하될 때 드러나는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 양상임을 뒷받침한다. 이는 또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가 훈육적 의도에서 비롯되는 양육적 행동이기보다는 부모의 심리적 필요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이론적 관점(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Barber 외 2005; Soenens 외, 2005)을 지지한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어머니 본위의 기분이나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억박지르며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주는 공격적 행동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조율 능력이 저해되어 우울과 불안이 가중될수록 갈등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심리적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영향을 받고 자녀에 대한 애정적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애정적 통제와 언어적 통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하고 불안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애정적 거부와 공격성이 심해진다는 관련연구결과를 확인한다(Goodman & Gotlib, 2002). 한편 어머니의 자아유능감은 회피애착과 정서의 영향을 받고 언어적 통제와 애정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정서증상이 부모 효능감을 저하시킨다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김미숙, 2005; 박해미, 1994; 신숙재, 1997; Jones & Prinz, 2005)를 확인한다. 한편 자아유능감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강력한 위협요인임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 역시 각각 개별적인 경로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필요를 감안한 차별화된 부모상담 개입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적 효능감과 확신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정적 정서가 높은 어머니들의 어린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 정보제공 등의 인지적, 문제해결적 접근으로 자아유능감에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중재전략으로 친밀한 대상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내적 표상이 자녀에 대한 역기능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완충시킬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로 이어지는 경로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불안애착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여아의 경우가 남아의 경우보다 높았다. 즉 어머니들이 아들보다는 딸과의 관계에서 애착에 대한 중요성과 집착 그리고 분리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증상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두드러졌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가 아들보다 딸에 대한 어머니들의 간섭 혹은 과보호 양상이 높기 때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어머니의 회피애착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의 경우가 여아의 경우보다 높았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딸보다 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애착 관련 정서를 충족하는 대상으로써 자녀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억제하고 무관심할수록 정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 포함된 30대 중반의 젊은 어머니들이 아들 혹은 딸에게 갖는 기대가 애착관

런 경험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도 탐색해 보면 좋겠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포함하여 모-자, 녀, 부-자, 녀 단위로 불안정 애착이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확인되어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불안정 애착이 유아에 대한 언어적, 애정적 심리적 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을 어머니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확장하고 부모상당 장면에서 사례의 개념화와 개입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이루어진 단점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하고 자녀의 성별에 대한 차이 역시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심리적 역동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애착 관련 사고와 정서에 대한 방어적 전략을 좀 더 탐색하여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야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 어머니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포함하여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특히 양육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좌절감과 정서적 소진에 대한 감정처리 능력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위험수위에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를 확인하여 심리적 통제가 심리적 공격 혹은 학대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겠다.

참고문헌

- 권기정 (2008).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경미, 박범혁, 김영희 (2005). 기초연구: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2), 63-80.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미혜, 옥경희, 천희영(2003). 어머니의 신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4), 85-100.
- 김송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인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청소년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자의식 정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영, 박성연 (2008). 사회, 정서발달: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 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15-131.
- 박경희 (2004). 유아의 자기통제와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초기대상관계 유형간의 관계.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해미 (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소언주, 도현심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기의 초기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11), 209-222.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양승윤 (2008).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경남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3(1), 63-73.
- 이미정 (2010). 부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전현진 (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 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Ardelt, M., & Eccles, J.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 944-972.
-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73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holtz, H. E., & Olsen, J. A.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137.
- Ba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lsky, J. (1984). Determinants of parenting.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lby, J. (1984). Caring for the young:

-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In R. S. Coheler, & S. H. weissman (Eds.), *Parenthood. A psychodynamic perspective* (pp.269-284). New York: Guilford Pres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d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t
- Bugental, D. B., Blue, J., & Cruzcosa, M. (1989). Perceived control over caregiving outcomes: Implications for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32-539.
- Bugental, D. B., & Johnston, C. (2000). Parental and child cognitions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35-344.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81.
- Cassidy, J., & Kobak, R.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300-323), Hillsdale, NJ: Erlbaum.
- Cassidy, J., & Shaver, P. R. (Eds.). (2008).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 13-24.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 126-148.
- Deklyen, M., & Greenberg, M. (2008).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637-665). New York: Guilford.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NY. Other press.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 861-868.
- Goodman, S. H., & Gotlib, I. H. (Eds.). (2002).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3), 341-363.
- Kobak, R. (1999). The emotional dynamics of disruption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ntervention.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21-43). New York: Guilford.
- Levy, K. N., Blatt, S. J. & Shaver, P. R. (1998). Attachment Styles and Parental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 407-419.
- Lyons-Ruth, K., Lyubchik, A., Wolfe, R., & Bronfman, E. (2002).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attachment: hostile and helpless profi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 among families at risk in S. Goodman and I. Gotlib (Eds.).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ciejewski, P. K., Prigerson, H. G., & Masure, C. M. (2000). Self-efficacy as a mediator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ifference based on prior history of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 373-378.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3). The attachment behavioral system in adulthood: Activation, psychodynamic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Vol. 35, pp.53-152). New York, NY: Academic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Adult attachment and affect regulation.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503-531). New York: Guilford.
- Mikulincer, M., Shaver, P., Cassidy, J., & Berant (2009). Attachment-related defensive processes in J. H. Obegi, & E. Beranrm (Eds.) *Attachment theory and clinical work with adults* (pp.293-327). New York: Guilford Press.
- Olsen, S, F., Yang, C., Craig, H. H., Robinson, C. C., Peixia W., Nelson, D., Nelson, J., Jin, Shenghua, & Wo, J.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holes, W. S., Simpson, J. A., & Orlina, M (1999). Attachment and anger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40-957.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2). 133-161.
- Shaver, P. R. & Mikulincer, M. (2011).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aver, P. R., Segev, M., Mikluncer, M., (2011). A behavioral systems perspective on power and aggression. In P. R. Shaver & M. Mikulincer (Eds.)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pp.71-8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899-914.
- Soenens, B., Vansteenkiste, M., Luyten, P., Duriez, B., & Goossens, L. (2005). *Psychological control and perfectionism*.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and Lushene, R.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Toth, S. L., & Cicchetti, D. (1996). Patterns of relatedness,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erceived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32-41.
- Toth, S. I., Harris, L. S., Goodman, G. S., & Capezza, N. (2011). Influence of violence and aggression on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trauma, attachment, and memory In P. R. Shaver & M. Mikulincer (Eds.)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pp.351-366).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reffers, D. A., & Silverman, W. K. (2001). Anxiety and its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fore the twentieth century. In W. K. Silverman & D. A. Treffers(Eds.). *Anxiety and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1-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entacosra, C. J. & Shaw, D. S (2008). Maternal predictors of rejecting parenting and early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2), 247-259.
- Wei, M., Vogel, D. L., Ku, T.-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 (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e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64-575.
- Wood, J. J. (2006).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in a clinical sample, *Clinical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73-87.
- 1 차원고접수 : 2010. 11. 7.
 심사통과접수 : 2010. 12. 12.
 최종원고접수 : 2010. 12. 27.

Maternal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control: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sense of competence

Christine Myunghee Ahn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a gap in the extant literature regarding risk factors for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 sample of 497 mothers of preschool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Maternal reports of adult attachment, state anxiety,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control were analysed using the SPSS 17.0 and AMOS 17.0. Results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mother's insecure adult attachment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ttachment anxiety significantly influence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both in terms of verbal and emotional control. The pathway of influence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also mediated by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as well as maternal sense of competence. Second, attachment avoidance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maternal emotional and verbal control with maternal depression, anxiety, and sense of competence as significant mediators. There also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with mothers of boys showing greater increase in depression and anxiety as the level of attachment avoidanc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ce of attachment anxiety on depression and anxiety was greater for mothers of girls compared to mothers of boys. While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as well as maternal sense of competence were also significant predictor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they seem to take different pathways in exerting their influence.

Key words : insecure adult attachment, maternal depression and anxiety, maternal sense of competenc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